

나비의 함평, '창포'도 뜯다

전국 재배량의 80% 바이오뷰티 산업 원료로

항진균효과 탁월... 창포로션·비누 등 브랜드화

함평군이 창포를 이용해 바이오뷰티 산업을 육성한다.

함평군은 2011년부터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제출한 '창포의 항진균성(抗真菌性)을 이용한 바이오뷰티 산업 육성' 사업이 최근 전남도의 심사를 통과·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19개 시·군 21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1년 향토 산업 육성사업 선정 심사 결과 함평군을 포함해 10개 시·군 사업을 선정했다.

함평군은 나비축제 성공에 따른 인지도 높은 청정브랜드와 향토자원, 생태관광을 활용한 농가 소득증대와 농의 소득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창포 재배단지를 확대해 창포를 이용한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함평군내에는 2008년도 기준 12ha 805농가가 창포를 재배하고 있고, 2개의 가공업체가 설립돼 비누, 삼푸, 바디로션 등 주문생산(OEM) 방식으로 창포관련 가공품을 생산되고 있다.

또한 창포 추출물을 이용한 코클로

디니움 적조생물 방제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드러나 적조 방제재로 활용할 수 있어 창포의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창포는 6개 면에 걸고 600ha로 있고 전국 대비 생산·유통물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아사론, 칼라메온, 에우게놀 등 기능성 성분을 활동하게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가공회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 통과된 전남의 10개 사업들은 이달 중순께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5~6명의 심의위원을 구성, 1차 서면심사에서 전국적으로 4개 분야 10개 사업을 2011년부터 3년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12ha인 창포 재배 면적을 2013년까지 5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석형 함평군수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생산자조직 구축과 생산기반 확충, CI브랜드 개발, 제품가공시설 구축, 특허출원, 마케팅 활성화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가소득과 농외소득 증대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가을 제철 고구마 “많이 드세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6일 강진군 작천면 죽산마을 들녘에서 마을주민들이 투실히 자란 고구마를 수확하느라 바지땀을 흘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연내 착공

총사업비 200억 내년말 준공

장성군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황룡강의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했던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을 연내 착공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고사업에 확정된 후 각종 행정처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중 사업을 발주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200여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이달 중에 환경부와의 재원 협의와 장성군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총 2년여 기간으로 2011년

말 준공된다.

고농도의 가축분뇨를 토양 미생물로 활성화시켜 생물학적 처리와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유기물질과 영양소를 제거하는 공법으로 하루 95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게 된다.

장성군은 이번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준공되면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 수질 오염원인 가축분뇨를 공공처리 시설로 반입,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황룡강의 오염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농장 일용근로자 재해보상

전남 농협 '보장공제' 판매

농장에서 일하는 농업근로자도 농작업 중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www.nonghyup.com)는 지난 1일부터 농장주가 단기간 고용한 피고용인의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업 근로자보장공제' 판매에 들어갔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 상품은 전남에서는 해남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밖에 ▲제주 ▲경기

김포 ▲강원 춘천 ▲충북 충주 ▲충남 예산 ▲전북 고창 ▲경북 안동 ▲경남 의령 등지에서 판매된다.

계약자 자격은 일용 근로자 등을 단기 고용해 농작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되며, 주계약 금액이 1천만원으로 단일상품이다.

또 가입연령은 20~84세까지이며, 공제기간은 1일부터 89일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2011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

호랑 6급 이상 전 공무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워크숍

완도군은 다음달까지 4차례에 걸쳐 6급 이상 전 공무원 171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자 마련됐다.

오는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0일 동안 군비 4억4천100만원의 매입 장려금을 투입, 함평군농협쌀조합 공동 사업법인(통합 RPC)과 계약체결한 친환경 저농약 인증벼 1천192㏊가 1천404㏊, 8천424㏊에 대해 매입을 실시한다.

또 함평군농협쌀조합 공동 사업법인에서도 군과 똑같은 금액의 매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는 등 친환경 농업의 질적 향상에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호랑

6급

전공무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워크숍

전공무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워크숍